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사에 쓰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영원하리



↑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1(1972)년 4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1(1972)년 4월



주체사상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1(1982)년 4월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4(1985)년 4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9(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제1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리인모동지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82(1993)년 7월



조선로동당 제2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83(1994)년 4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발을 수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85(1996)년 1월



청년들에게 혁명의 희망봉을 넘겨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84(1995)년 10월

뵙고 싶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절절하게 (♩=126)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Staff 1: '자나깨나 뵙고- 싶 어' (C major). Staff 2: '그리울던 품에- 안 거 행- 복 의 눈물집니다' (F major). Staff 3: '뵙고 싶었습니다' (C major). Staff 4: '우 리의 김정은동 지' (F major). The score includes lyrics in Korean and musical notation with various clefs and key signatures.

작사 리지성
작곡 우정희

2. 친근하고 열정 넘친 그 모습 우러를 때면
산이라도 들어 옮길 새 힘이 용솟습니다
(후렴)
3. 잠시라도 기쁘시게 사랑을 아뢰고 싶어
쌓인 피로 잊으시게 노래춤 펼치고 싶어
(후렴)
4. 천리 바다 해 천대도 끝까지 따라서 가리
불길 만리 빛고 가도 한마음 충정 다 하리
(후렴)

2. 친근하고 열정 넘친 그 모습 우러를 때면
산이라도 들어 옮길 새 힘이 용솟습니다
(후렴)

3. 잠시라도 기쁘시게 사랑을 아뢰고 싶어
쌓인 피로 잊으시게 노래춤 펼치고 싶어
(후렴)

4. 천리 바다 해 천대도 끝까지 따라서 가리
불길 만리 빛고 가도 한마음 충정 다 하리
(후렴)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여래 나라에서 신문, 잡지 특집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쇄신문, 잡지가 특집하였다.
신문 『꼼쓰몰스까 브리우다』 9월 24일부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사진문화를 보시고 배두산혁명 강군의 불멸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E. C.』와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태도국주의 통행을 결성하시였다.

『E. C.』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자기식으로 발전시켜왔다.

모든 문제 해결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기 나라의 현실,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았다.

지난 세기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확장될 때 조선이 끄떡없이 전진 할수 있은 것도 조선로동당이 자주성의 원칙을 드립없이 전지해 왔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군관건설과 강회발전에 성과적인 힘을 넣어왔다.

조선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체험자들을 타파하고 전후 미국파의 대결점에서 승리만을 떨쳐울수 있은 것은 조선로동당이 신군사상과 보선을 일관하게 구현하여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끊임없는 혁위협에 대처하여 조선은 혁무기까지 보유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명도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되었다.

조선로동당의 명도따라 조선의 전체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 강성 국가건설에서 남에 남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성파들을 이룩하고있다.

식어가는 전사의 몸을 통지적 사방의 체온으로 뜨겁게 녹여주시며 가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갈리신 음성으로 전사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전사의 마지막 숙걸을 읊지켜 주신분!

힘이 모자라는 전사에게는 심혈을 기울여 혈액을 부어 주시고 길을 엎디던 전사에게는 위대한 믿음으로 재생의 길을 열어 주시었으며 대오에서 떨어진 전사는 천리길, 밤려길이로 되돌아가 붉은 기록에 감싸안아 다시 대오에 새워주신 위대한 통지가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일꾼과 그의 안해의 손을 뜨겁게 잡아 놓고 혁명세계에의 천만리에 헤쳐오신 장군님이시다.

한순간도 그려보지 않은 적 없는 품, 온 세상을 다 준다하고 해도 그 품파는 절대로 비둘기 수 없는 어버이장군님의 품!

일군도 그의 안해도 어버이장군님의 품에 와락 안겨들며 장군님의 웃음을 뜨거운 눈물을 흘릴수도 있고 상처에 있는 마음을 풀어주며 웃을수도 있으며 시름잇고 잠들수도 있는 품, 설사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떠난다 해도 영원히 정경의 길을 걸을수 있는 위대한 통지의 품이다.

우리 장군님의 품은 혁명가가 얼굴을 묻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수도 있고 상처에 있는 마음을 풀어주며 웃을수도 있으며 시름잇고 잠들수도 있는 품, 설사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떠난다 해도 영원히 정경의 길을 걸을수 있는 위대한 통지의 품이다.

그는 애지도 서지도 못하고 마음을 바이어았다. 순간 그의 머리에는 자기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이께서 오시면 일원실에는 들어오시지 못하게 애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번개쳤다.

찾아온 사람을 문밖에서 끌어버릴 생각인가고, 이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는가고, 그러자 달고 어서 들어가고자 하시며 그의 등을 다정히 떠미신 어버이장군님,

그의 따뜻한 손길에 페리리에 방안에 들어서기는 하였지만 그는 될 수록 그이와 멀리 앉으려고 방구석에 자리를 정하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 그려는 그의 손을 잡아이끄며 자신의 절에 놀려 앉으시였다. 그는 당황하여 자기의 병은 접촉하면 일원 병이라고 더듬거리며 말을 들었다.

알고있다. 설사 그렇다고 치자. 그때 나를 통지의 아름보다 세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 작정인가. 그동자 끔찍한 편지로 그를 피하면 그게 무슨 혁명동지인가....

일군은 가슴에서 오열이 치밀어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장군님을 뵈오니 이제 병이 다 나온것 같다고 눈물섞인 어조로 말씀을 하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며 내가 찾아온 동부의 병이 나을수만 있다면 계속 찾이오겠다고 하시며 그의 건강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어버이장군님!

그는 끝내 참고참았던 오열을 터치고야 말았다.

『교고사경』 『백두산왕이』라는 우리 장군님의 통지에의 세계는 이처럼 일민과 통지들을 위하여 물불을 차고자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이내서 여 위대한 품에 안아 한량없는 정파

어려워도 인민을 위한 시책 실시에서는 자그마한 후퇴나 악화도 허용하지 않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모든 리상파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강성 국가건설을 힘차게 향하고있다.

오늘 조선에 이룩되고 있는 성파들은 조선로동당의 명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당은 인민들이 진실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열렬히 힘을 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매 허고 잘지 『씨 엠 브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화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불체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태도국주의 통행을 결성하시였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자기식으로 발전시켜왔다.

모든 문제 해결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기 나라의 현실,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았다.

지난 세기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확장될 때 조선이 끄떡없이 전진 할수 있은 것도 조선로동당이 자주성의 원칙을 드립없이 전지해 왔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군관건설과 강회발전에 성과적인 힘을 넣어왔다.

그리고 하면서 위대한 당의 명도밀에 투쟁하고 있으며 인민의 운명을 편집하였다.

김일성 동지의 창건자이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언제나 인민들 속에서 계시면서 그들의 의사와 요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로 선과 정책을 세우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리익을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 언이었으며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9월 29일과 30일 여러 나라 신문, 잡지가 특집하였다.

로씨아문 『쁘리아루트스끼 에도 모스찌』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향상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체성을 힘차게 향하고있다.

오늘 조선에 이룩되고 있는 성파들은 조선로동당의 명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당은 인민들이 진실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열렬히 힘을 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매 허고 잘지 『씨 엠 브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화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불체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태도국주의 통행을 결성하시였다.

『E. C.』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 언이었으며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자기식으로 발전시켜왔다.

모든 문제 해결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기 나라의 현실,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았다.

지난 세기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확장될 때 조선이 끄떡없이 전진 할수 있은 것도 조선로동당이 자주성의 원칙을 드립없이 전지해 왔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군관건설과 강회발전에 성과적인 힘을 넣어왔다.

그리고 하면서 위대한 당의 명도밀에 투쟁하고 있으며 인민의 운명을 편집하였다.

김정일 동지의 창건자이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북무한 힘을 편집하였다.

김정일 동지의 창건자이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북무한 힘을 편집하였다.

매 허고 잘지 『씨 엠 브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화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불체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태도국주의 통행을 결성하시였다.

『E. C.』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 언이었으며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자기식으로 발전시켜왔다.

모든 문제 해결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기 나라의 현실,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았다.

지난 세기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확장될 때 조선이 끄떡없이 전진 할수 있은 것도 조선로동당이 자주성의 원칙을 드립없이 전지해 왔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군관건설과 강회발전에 성과적인 힘을 넣어왔다.

그리고 하면서 위대한 당의 명도밀에 투쟁하고 있으며 인민의 운명을 편집하였다.

김정일 동지의 창건자이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북무한 힘을 편집하였다.

매 허고 잘지 『씨 엠 브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화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불체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태도국주의 통행을 결성하시였다.

『E. C.』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 언이었으며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자기식으로 발전시켜왔다.

모든 문제 해결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기 나라의 현실,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았다.

지난 세기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확장될 때 조선이 끄떡없이 전진 할수 있은 것도 조선로동당이 자주성의 원칙을 드립없이 전지해 왔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군관건설과 강회발전에 성과적인 힘을 넣어왔다.

그리고 하면서 위대한 당의 명도밀에 투쟁하고 있으며 인민의 운명을 편집하였다.

김정일 동지의 창건자이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북무한 힘을 편집하였다.

매 허고 잘지 『씨 엠 브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화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불체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태도국주의 통행을 결성하시였다.

『E. C.』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 언이었으며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자기식으로 발전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여

지금으로부터 8년전 온 민족과 전세계 민족을 격동과 환희의 열풍속에 휩싸이게 하는 사변이 일어났다.

평양에서 또다시 혁사적인 민족화합의 장이 펼쳐지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높이 울려퍼진 것이다.

조국통일운동사에 뜻깊은 장을 아로새긴 잊지 못할 그 날을 추억할수록 이 땅우에 우리 민족끼리의 기회마다 전진하는 민족사의 새시대를 펼쳐지고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투顿한 힘 티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한생이 어려운 눈곱적시는 우리 거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사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결코 잊고나가지 말고, 빛나거니마어 철세인민들의 손고로 뜻을 밟아들어 민족최대의 속원인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낸 일이 없다는 것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지나친 확고한 신념이었다.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불분하는 애국의 의지를 안으시고 6. 15 통일시대를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관계발전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전략적국면을 마련하여 자주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길 결심을 하시였다.

하여 주제 9 (2007)년 8월 평양에서는 남조선당국자의 평양방문에 관한 북남합의서가 발표되어 되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로는 온전히 우리 장군님께서만 내리실 수 있는 대용단이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제2차 북남수뇌상봉의 성과적실현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분별사상 처음으로 남조선당국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록로 평양에 오도록 대범한 아량을 베푸시었으며 남측임행에 대한 평양시민들의 온도행렬행사와 영접행사를 비롯한 전 과정이 철저히 민족단합을 위한 행사로 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온 거례는 바야흐로 미증하게 될 민족 사적사변을 눈앞에 그려보며 경정과 흥분으로 들끓었으며 세계도 커다란 관심 속에 북남수뇌상봉의 날을 기다렸다.

해빛과 눈부신 주제 9 (2007)년 10월 2일, 몸소 4. 25문화관광장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에 관한 미소를 지으시고 평양을 방문하는 남측임행을 따뜻이 미중해주시였다.

승진한 그 화폭앞에 온 삼천리강도가 아니온 세계가 뜨거운 사업이므로

이것도 역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물러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경제협력사업과 판문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법하게 풀어주시였다.

그의 숭고한 민족자주정신과 뜨거운 민족애에서 남조선당국자는 시종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은 새로운 시대이다, 이전시기의 판관과 밖은 유물을 버리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하시며 신언제 목에 대해서도 주제를 명백하게 반영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 할 때 대하여 가서 주시였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해주시고 온 민족앞에 조국통일의 실현강령을 제시해주시신 어버이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은 남측임행을 끝없는 매혹의 세계에로 이끌어갔다.

주제 9 (2007)년 10월 4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듯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 6. 15 광동선언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인품에 깊이 머리깊이며 그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들판한 어버지의 모습으로 모색되였다고 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통포에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 경축

로씨야 및 독립 국가 협동체 나라 정당, 단체 연합 토론회 진행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 경축으로 씨야 및 독립 국가 협동체 나라 정당, 단체 연합 토론회가 9월 30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장 면에는 위대한 김일성同志과 김정일同志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또한 주체사상부를 배경으로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즐기고 있다. 쓰는 대형 프로그램 카드가 걸려있었다.

토론회에는 로씨야, 끼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에스토니아 등 10여 나라의 15개 정당, 단체 대표들,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원들이 등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공산당 당원·봉사자·봉쇄 속에서도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 없이 고수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교훈은 강력한 국주의 압력과 봉쇄 속에서도 사회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추구하고 있다.

1부 위원장 바이싸예브가 개막 연설을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同志께서는 조선에 대한 신념을 버리고 제국주의에 투항한 당시 쏘련공산당지도부의 무책임에 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당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에 선후적 관심을 돌리며 사회주의를 끌어올리는 것을 당면한 책임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사회주의의 위업을 승리에 향하고 있다.

쏘련봉파의 기본원인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버리고 제국주의에 투항한 당시 쏘련공산당지도부의 무책임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당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에 선후적 관심을 돌리며 사회주의를 끌어올리는 것을 당면한 책임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사회주의의 위업을 승리에 향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同志께서는 조선에서 예르말리비 쿠스는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同志의 명도밑에 미제를 반대하는 3년의 피어린 전쟁에서 끝나는 순간에 힘을 더해온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 기치밑에 새 사회건설을 밟고 나갔다.

로 수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봉쇄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허물어질 때인 이유가 나아갈 깊은 오직 사회주의 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조선을 사회주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지신 것은 조선로동당 역사에 길이 빛날 업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명도밑에 조선이 형언할 수 없는 제국주의 압력과 봉쇄 속에서도 사회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추구하고 나가고 있는 것은 세계가 우리하고 친양하는 조선로동당의 또 하나의 거대한 공적이다.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은 조선로동당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21세기 사회주의 시대로 혁신을 하여 세상을 향하고 있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 및 물회협조로 씨야협회 위원장 베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26년 10월 17일 조선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결성되었다. 『E. C.』는 조선로동당의 첫 혁명전선 조직인 『E. C.』가 시원으로 터무니롭게 축하하고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날을 고대하고 있다.